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월마트의 2/4분기 실적, 예상치 상회. 소비부진 우려 완화
 - 미국 7월 주택착공, '21년 2월 이후 최저. 3/4분기에도 건설활동 부진 지속될 가능성
 - 독일 8월 ZEW 경기기대지수, 전월비 하락.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원인
 - 중국 총리, 주요 지방정부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소비부진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0.2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주요 소매업체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매수 증가
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산 및 광업 관련주 강세 등으로 0.2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7월 소매매출 발표 앞두고 등락이 제한
 유로화가는 0.1% 상승, 엔화는 0.7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7월 FOMC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 등이 반영
 독일은 ECB의 통화긴축 예상 등으로 7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0.2원, +2.1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8/16일	8/15일	전일대비			8/16일	8/1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05.2	4,297.1	0.19%	국채 금리 10y	미국	2.80%	2.79%	2bp
	유럽	443.07	442.35	0.16%		독일	0.97%	0.90%	7bp
	중국	3,277.9	3,276.1	0.05%	CDS 5y	한국	35bp	35bp	0bp
	일본	28,869	28,872	-0.01%		중국	71bp	72bp	-1bp
	한국	2,533.5	휴장	0.22%	위험 지표	EMBI+	-	416	-
환율	달러지수	106.49	106.55	-0.05%		VIX	19.69	19.95	-1.30%
	유로화	1.0171	1.0160	0.11%		WTI유	86.53	89.41	-3.22%
	엔화	134.22	133.32	-0.67%	원자재	구리	362.5	361.8	0.19%
	위안화	6.7882	6.7735	-0.22%		금	1,775.7	1,779.7	-0.23%
	원화	1,308.1	휴장	-0.4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월마트의 2/4분기 실적, 예상치 상회. 소비부진 우려 완화

- 미국의 대표 소매업체 월마트(Walmart)의 2/4분기(5~7월) 매출은 전년동기비 8.4% 늘어난 1529억달러로 예상치(1508억달러)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. 순이익 역시 52억달러로 전년동기(43억달러) 대비 늘었으며, 주당순이익도 1.77달러를 기록하여 시장 예상치(1.62달러)보다 높은 수준
- 휘발유를 제외한 국내 동일점포매출 기준의 경우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3% 증가하고, 연간 전체로는 4% 늘어날 것으로 예상. 금년 조정 주당순이익은 전년대비 9~11% 감소할 것으로 추정. 이는 이전 전망치(-11%~-13%) 대비 소폭 개선
- 월마트의 John David Rainey CFO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소득층의 비중 증가 등을 이번 결과의 원인으로 지목. 다만 향후 경기둔화 등으로 소비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
- 또 다른 대표 소매업체 홈디포(Home Depot) 역시 2/4분기 매출이 438억달러를 기록하여 예상치(434억달러)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. 주당순이익도 5.05달러로 예상치(4.94달러)를 상회. 연간 이익 전망은 기존 수준을 유지
- 대표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소비지출이 저해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과도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 제기. Oppenheimer의 Brian Nagel도 이번 결과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며, 소비지출이 큰 폭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이 완화되었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7월 주택착공, '21년 2월 이후 최저. 3/4분기에도 건설활동 부진 지속될 가능성

- 해당 건수(연환산 144.6만)는 전월(159.9만) 대비 대폭 줄었으며,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과 건설비 증가 등에 기인. 주택착공에서 비중이 가장 큰 단독주택 착공의 경우 전월비 10.1% 감소한 91.6만건으로 '20년 6월 이후 최저
- 한편 7월 건설허가는 연환산 167.4만건으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. 2/4분기 주거용 고정투자는 2년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으며,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. 다만 건설공급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

- 이번 법안은 물가상승 억제 및 재정적자 축소 등이 주요 목적. 온실가스 축소 등의 기후변화 대응 및 약값 조정 등을 위해 4300억달러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질 예정.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의도했던 효과가 확인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

■ 유로존 6월 무역수지, 전월비 적자 폭 확대.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기인

- 해당 기간 계절조정 기준 무역수지는 308억달러 적자로 전월(-272억달러) 대비 증가. 수입산 천연가스 및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. 연초 이후 6개월 동안 에너지 부문 무역수지 적자는 2908억유로로 전년동기비 3배 증가

■ 독일 8월 ZEW 경기기대지수, 전월비 하락.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원인

- 해당 지수는 -55.3을 기록하여 전월(-53.8) 및 예상치(-53.8) 하회. ZEW의 Michael Schroeder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으며, 에너지 공급 불안 등이 경기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

■ 중국 총리, 주요 지방정부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

- 리커창 총리는 소비확대를 유도하고,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강화하도록 촉구. 아울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역시 필요할 경우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

■ 호주 중앙은행, 추가 금리인상 가능. 금리경로는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결정

- 공개된 8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, 다수의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. 다만 이러한 과정은 예정된 경로를 따르기 보다는, 인플레이션 전망 혹은 경제지표 결과 등을 반영할 방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1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산업생산(전월비): 0.6%, 6월(0.0%), 예상치(0.3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1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FOMC 의사록 공개 및 연준 보우먼 이사 강연, 7월 소매매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의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금융 여건, 강력한 통화긴축을 초래할 우려 - Reuters

(Loosening financial conditions threaten central bank inflation fight)

-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금융여건은 경제 여건 대비 대체로 완화적. 이는 투자자들이 7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연준이 통화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었기 때문. 아울러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
- 하지만 일부 연준 인사들은 물가안정이 가시화될 때까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 의지를 거듭 강조.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금융시장의 잘못된 기대로 인한 완화적 금융 여건은 오히려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

■ 독일의 경기침체, 복합 위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 고조 - Financial Times

(German recession fears deepen as economy is hit by 'perfect storm')

-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 등으로 독일의 경기침체를 경고.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이어질 뿐 아니라 고물가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약화 등도 초래
- ING의 Carsten Brzeski는 높은 물가수준,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,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 등이 독일경제의 복합적 위기 원인이라고 지적. 이에 당국에서 에너지 절감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, 불확실성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

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감세 정책, 보다 광범위한 적용이 필요 - 블룸버그

(Why Are Only Some Tax Breaks Adjusted for Inflation?)

■ 중국 인민은행의 MLF 금리인하, 신용수요 확대에 불충분. 추가 인하 예상 - 블룸버그

(Too little, Too late, China rate cut spurs call for more moves)

■ 신흥국 부채조정 시스템, 부분적인 개선 및 IMF의 역할 확대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Sovereign debt architecture is messy and here to stay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